

#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사망

-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추진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6월 9일(일) 오전 1시 41분경 수도권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,
  - 신속한 사고복구와 조사를 위해 철도국장, 철도안전감독관 등 초기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하였으며, 서울교통공사(사장 백호)는 연신내역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사고 수습 중이다.
- 작업자(53세, 남, 서울교통공사 소속)는 전기실 내 고압 전선 케이블 관련 작업 도중 감전된 것으로 추정되며,
  - 119 출동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후 2시 05분경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시 40분경 사망 확인되었다,
- 국토교통부는 안전조치 및 규정 준수 여부 등 작업 전반을 조사하여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철도국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재훈 (044-201-4603)